



키스의 화학: 독일의 과학진흥 담당자들은 빛나는 주홍색 입술이 일반사람들에게 화학을 더 배우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독일은 올해 화학의 해를 맞아 키스의 화학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 행사는 선달 그믐날 쌍쌍들이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시계를 보지 않고 정확히 15초간 공개 키스하는 경기로 시작되었다. 한 호주인 부부가 15.9초간 키스하여 1천 유로(1천80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이 달러 들어와서 베를린 시민들은 키스의 '화학과 미술'에 매료되고 있다. 관객들은 빨간 등을 켜 터널을 지나면서 테크노 음악을 배경으로 빠른 템포의 심장 고동을 듣고 키스로 발동하는 도파민(부신에서 만드는 뇌에 필요한 호르몬), 옥시토신(진통촉진제), 세로토닌(혈관 수축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일종) 그리고 아드레날린(부신 수질 호르몬)의 분출을 보여 주는 비디오를 본다. 일단 이 사랑의 터널을 통과한 관객은 지방 과학자의 도움으로 화학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10일간의 전시기간 중 첫 5일간에 이미 1만4천명이상이 관람한 이 전시는 다음달에는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로 이동한다.



웰컴 트러스트 총재에 마크 월포트

유럽 최대의 생물의학 자선단체인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는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루푸스(낭창·狼瘡) 및 자가면역 질환 전문가인 마크 월포트(Mark Walport)교수가 2003년 6월 1일부터 총재로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70년 전 제약회사 창업자 헨리 웰컴 경(Sir Henry Wellcome)의 유언에 따라 창설된 웰컴 트러스트는 198억 달러의 기금을 가지고 2005년까지 생물의학 연구개발에 연간 10억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런던 토박이인 월포트는 1997년이래 임페리얼 대학과 햄머스미스 병원 의학부장을 역임해 왔다.



브루크헤븐 연구소장에 초드하리

IBM에서 36년 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프라빈 초드하리(Praveen Chaudhari)는 2003년 4월 1일자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루크헤븐(Brookhaven) 미 국립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했다. 인도 태생인 초드하리는 미국으로 건너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을 나온 뒤 1966년 IBM에 입사하여 경영과 나노과학 및 초전도 연구를 수행한 재료과학자 출신이다. 뉴욕주 업턴에 있는 브루크헤븐 연구소는 최근 여러 해 동안 물의를 일으킨 연구로의 폐쇄와 모호한 폐기물처리를 둘러싼 이웃사회의 맹렬한 항의에 시달려 왔었다.



록펠러대학 총장에 영국인 폴 너스

뉴욕의 록펠러대학은 세포생물학자 폴 너스(Paul Nurse, 54)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다. 티모시 헌트(Timothy Hunt) 및 리랜드 하트웰(Leland Hartwell)과 함께 '세포성장을 조절하는 체크포인트'에 관한 연구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너스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암의 분자생물학 연구자이다. 그는 자선연구단체인 캔서 리서치 UK의 소장을 그만두고 록펠러대학에서 연구실을 차린다.



세계 최대의 천문대에 로버트 브라운

전 생애를 버지니아주 소재 미 국립전파천문대에서 보낸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 59)이 세계 최대의 전파망원경인 푸에르토리코 소재의 코벨대학 아레시보 천문대의 새로운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대 발견의 행운을 안은 지질학도들: 미국 아칸소대학 3명의 지질학도들은 지난 1월 뜻밖의 큰 행운을 안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을 축하하는 동안 이들은 현장조사 여행에 나섰다가 도로와 가까운 곳에서 불과 2~3cm 두께의 흙으로 덮인, 2.5m의 세계 최대 두족류(頭足類:오징어, 문어 따위) 화석을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이것은 3억2천5백만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